

대구BBS 제1회 신행일기 공모 금상

# 신행담



## 귀한 만남

**정** 일대불교를 오셨던 어김없이 어머니는 새벽일찍 일어나서 그 시린 찬물에 머리를 감으시고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 입으셨다. 어머니 옆에 놓인 조그마한 대소쿠리엔 북어탕 과일 향, 초, 흰종이 등이 담겨있었다. 동을 무렵 어슴프레한 새벽녘에 어머니 갈 길을 서두르셨다. 어린 시절 누구나 그러하듯이 어린 난 잠오는 눈을 부비며 엄마의 치마저락을 훑칠 새라 종종 걸음을 치며 대문 밖을 따라나섰다. 도착한 곳은 동네어귀 개천, 흐르는 냇물을 앞에 두고 이기가 끼지않은 깨끗한 장소를 선택하신 후 소쿠리를 내려놓으시더니 훑발을 밝히고 두손을 이 합장해 절하시며 연신 무엇인가를 축원하며 기도하셨다. 엄중살한인데 허허벌판 냇가에 부는 바람은 차고 매서웠다. 훑발이 할 사이없이 흙을 주었고 꺼질 듯 꺼질 듯 되살아나곤 하였다. 어린 마음에 행여 훑발이 끼지면 어떨까나 싶어 고사리손을 녹여듯 조심스레 훑발을 감싸쥐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 관심은 대학을 졸업하자 곧 천주교 부설 유치원에 취업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이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이를 계기로 다시 교리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영세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일이면 언젠가 미사보와 성경책을 들고 미사에 참여하였고 신부님과 수녀님의 따뜻한 배려에 놀랐사드리며 지내었다.

결혼을 할 때 종교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시대의 종교는 불교적 성향만 나타낼 뿐 불교는 아니었다. 머니리의 종교생활도 인정해주었다. 남편은 종교엔 큰 관심이 없었으나 크

의 작은 절에 가게 되었다. 짝어도 내가 보기엔 무당집은 아니고 절도 아니고 부처님을 모셔두긴 했으나 너무 심했다. 다시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그때 친정 언니에게 혼들리는 나의 심경을 털어 놓았더니 "너희 시댁에서도 기다려 줄만큼 기다리셨다. 어느 부모인을 걱정하지 않겠나"라면서 언니따라 단양 구인사에 갈 것을 권유했다.

그 이후 난 더욱 심한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 개종을 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마음을 정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개종을 하면 종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그간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과도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아 더 갈증이 심했다. 곁에 있는 언니는 항상 얘기했다. 부처님법은 정법이고, 인연법이고, 조화법이다. 부처님 법을 알고 따르고 실천하면 꼭 내게 좋은 일이 생길거라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했다.

그간 친정어머니의 신심도 깊어져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고 경전을 외시고 관음진경을 열심히 하셨다. 나이가 드시자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며 <천수경>을 공백에다 매직으로 크게 한층의 적어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크게 포박포박 정성을 다해 써 드렸다. 어머니는 매일 쉬지 않고 한구절씩 외우셨다. 새벽마다 독경하시는 어머니의 소리가 나에게도 친숙하게 들렸고 때로는 잘 외웠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나도 몇 구절은 외 수 있게 되



그림 · 문병성

## 생명조차도 내것 없으니 무엇을 바라고 집착할까

리스마스 이브엔 함께 자장 미사에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해해 주었다.

그러나 결혼후 몇 년이 지나도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없자 시댁어른들께서 걱정하시기 시작하셨다. 5년을 기다리다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셨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며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게 해달라는 불공을 드렸음을 몰랐지 않겠나. "아기야, 내가 계속 바쁘니 나랑 딱 한번만 절에 가자. 그 절에 가서 기도하면 아기를 꼭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 내 소원 한번 들어다오" 하시며 간곡히 부탁하셨다. 처음엔 가볍게 피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삼아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흘렀고 세월은 어머니의 말씀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옮겨 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시골

였다. 주변의 가까운 분들이 부처님 법을 따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도 공덕이 되었던가,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부처님 전에 귀의하고자 구인사로 향했다. 큰스님 전에 인사드리고 "개종하러 왔습니다" 말씀 드렸더니 "잘 잘 왔구나. 이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없지" 하시며 인자하게 맞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변질, 부처님에 대한 귀의, 잊갈린 내 마음은 무어라 할언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함에 빠져 있었다.

"무심으로 기도하라. 잡념을 끊어버리고 욕심도 탐심도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기도하라. 어려움이 있거든 더욱 용감하게 정진하라"고 당부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이 순간부터 난 불제자가 된거야" 굳게 마음을 다지고 4박5일 동안의 기도 정진에 들었다. 난 놀음이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 '부처님 전에

변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직 그 마음 뿐이었다. 난 번함의 무상함과 두려움을 너무 절실히 느꼈기에 나의 소원은 변함없는 마음 그것뿐이었다. 다시는 부처님을 버리지 않을거라고...

절이 지나자 기도중 신비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본명 4층 기도실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5층 큰법당에 내가 있었고 큰스님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인자하게 웃으셨다. 정말 믿지 못할 일이었다. 그때부터 난 모든 고통과 마음속의 방황을 지워버릴 수 있었고 진정 변치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음에 자신감이 생겼다.

4박5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그간 오셨던 성모마리아상, 성경, 목주, 미사보 등 성구를 잘 챙겨서 성당에 갖다 드렸다. 성당에 다녀오자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결혼 후 잠깐 직장 그만두고 쉬고 있으면서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더구나 대학에 교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나를 교사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터라 너무 기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절을 올렸다. 이곳과의 인연은 내게는 정말 소중한 귀한 것이었다.

3년을 지냈을까 연중 실시하는 교직원 건강검진에서 선천성 심장병결핵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검사 결과가 너무 놀랐다. 지금까지

지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선천성 심장병이라니... 더구나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시각 이후의 생명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두려움과 몸이 날게될 수술자극, 더구나 가슴 한 가운데를 평생 팔자극을 남기며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 싫었고 부끄러웠다. 차라리 수술하지 않고 사는게까지 싫다 죽고싶은 심정이었다. 울고 울고 또 울어 더이상 울 힘이 없었다. 기진한 상태로 집에 앉아 있는데 불현듯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생각을 바꿔라"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통한 마음을 사리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을 분명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할만한 소망이 있으리라. 생명이 있는 날까지 부처님과의 귀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참 진리의 길을 따르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참된 불자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의 마지막 도리라 생각한다.

안영미(경북 경산시 사동)

### 눈 안마기



가격 : 49,000원

본 상품은 안마 및 지압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아래의 근거로 설계하고 여러해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제품입니다.

#### 상품의 특성

1. 눈을 밝게 해줍니다. - 현대 생물자성학(BIOMAGNETIC)과 전통적 경맥학 성과를 응용하여, 22개의 영구 자석 침봉으로 눈 주위의 중요한 혈위에 작용하여, 안부세포의 생체 순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제거하며, 안근의 탄성을 회복하여 근시, 원시, 눈부심, 약시, 노인성 안질환의 자연치유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줍니다.
2.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 태양혈, 전주혈 등 머리 부분 혈위를 고주파 마그네틱 침으로 눌러 마사지하므로, 머리를 많이 써서 일어나는 어지러움, 눈앞이 아른거림, 건망증, 불면증등 머리피로 중합증세를 신속히 제거하여줍니다.
3. 미용효과가 있습니다. - 눈 주위의 주름살, 검·지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제거하여줍니다.

#### 사용 방법

- 1) 안마기 위쪽의 건전지 두정을 열고, 건전지의 극성에 맞게 넣고 두정을 닫는다.
- 2) 안마기를 얼굴에 편안한 상태로 끼고, 소파나 등받이 의자등 편안한 자세로 머리를 뒤로 붙이고, 눈을 감는다.
- 3) 안마기를 작동한다.(안마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시간을 미리 1분, 2분, 3분중에 맞추고 제품 정면 가운데 위치한 자동버튼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 사무를 보시는 분, 고3 수험생, 눈이 자주피로해 지는 노인분들, 시력이 나쁘신 분들, 평소엔 머리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소형물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5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 사람을 찾습니다.

사진의 여성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남편인 재일한국인 김오남이라고 합니다.

금년 7월 9일날 한국에 있는 집에 이주일 정도 놀러간다고 하기에 일본의 나라다 공항까지 남편인 제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집에는 3일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처 한수림은 2년간 3-4번 정도 한국의 집에 갔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 제주도의 집에 갔습니다. 1년 6개월전부터 기독교인 부모의 반대에 무릎쓰고 불교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갈때마다 대구에 있는 절에 3-4회 간적이 있습니다.

처 수림은 일본에 있는 1년 6개월전부터 테이프와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만 저 김오남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기에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가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없으므로 한국에 금년 7월 22일부터 4회에 걸쳐 처를 찾으러 갔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저를 보고 구해준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의 수림의 동생 송미영씨입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협심증입니다. 처 수림은 알고 있습니다. 3일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 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굉장히 아픕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 체중도 7kg 말랐습니다.

여러분 부디 처 수림을 보면 아래의 서울과 일본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 수림을 본 사람은 처 수림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일본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찾는 광고의 신문을 처 수림에게는 보이지 말아 주세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 처 수림이 일본 부모를 무시워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 수림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 수림은 스님이 되고 싶다고 대구의 보광사라고 하는 절의 스님에게 7월 16일 밤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후 어떤 절로 갔는지 모릅니다. 처 수림은 이름을 바꾸어서 절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처 수림을 마음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 수림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름: 한수림 (韓 秀 林) ◆생년월일: 1961년 12월 15일 ◆혈액형: AB형  
 ◆년령: 39살(단지 39살처럼 보이지 않음 4~5살정도 젊어보임)  
 ◆신장: 154cm (조그마한 체구로서 피부색은 보통입니다.)

머리카락은 길면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므로 머리를 틀어올려서 모자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어쩌면 머리스타일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은 사각형같은 얼굴형으로 턱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있는 눈입니다. 눈두덩이가 부은 것 같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썹에는 파랗고 좁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화장을 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했을 때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돼지고 같은 코를 하고 있고, 입술 바로 위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음.)

웃는 얼굴이 정말로 귀엽게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후 눈 또는 코의 성형가능성 있음.

마지막으로 매우 실례합니다만 찾아주시는 사례로 개인에는 많은 보상을, 사찰에는 감사의 사례로 사찰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시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연락처 송미영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서울 011-288-0712 / 일본 001-81-43-287-8228 송미영 한수림의 남편: 김오남(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찾아주세요. 정말 부탁 부탁드립니다. 처 수림은 스님이 되어 머리를 깎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부모님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